

군산, 지역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 총력

강임준 시장, 예결위 주요 의원들 만나 건의

군산시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6일 강임준 시장은 내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주요 의원들을 만나 군산시 현안과 주요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예결위 소속 김광수 의원, 이용호 의원, 정운천 의원, 안호영 의원 등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전해철 의원에게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신규 반영을 건의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비전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및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

원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을 만나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10만평 추가조성을 위한 사업비 증액 건의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증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국회단계에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서 정운천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어청도 항로 노후여객선 대체건조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며, 서해안 최원거리 도서지역인 어청도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40억 원 규모의 정부예산안 총사업비를 60억 원으로 증액해 고속 알미늄 여객선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을 건의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연계사업 예산확보가 어느 때 보다 중요



6일 강임준 시장은 내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군산시 주요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활동에 나섰다.

한 시점이다"며 "정부안에 과소 미반영된 역점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이번 달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되게 되며, 군산시는 남은 기간 전복도 및 정치권간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 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내 나무 심기 행사 추진

15일 인화공원 일대... 신청 후기부금 납부해야

익산시는 환경친화도시 선포에 발맞춰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화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2차) 부지에 조성되는 내 나무 숲에서 내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내 나무 심기 운동은 익산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민간 참여운동으로 출생,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익산시민이 헌수 및 기부를 통해 내 나무를 심는 운동이다.

참여 방법은 내 나무 종류 및 위치를 결정하고 신청서 작성 및 기부금(1구좌 20만원)을 납부한 후 내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내 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식재된 나무가 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숲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풀 깎기와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해 꾸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식수자 설명, 희망문구가 담긴 수목 명패를 제작 설치해 내 나무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맑은 공기를 전해주는 것과 같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내 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 나무 심기 운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854-4300)와 익산시 늘푸른공원과(☎850-588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수산업 경쟁력 강화 역점사업 추진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2025년까지 조성 예정

군산시는 글로벌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주요 현안사업들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수산물 위관물량이 낙후된 가공유통 구조로 원물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부지 약 8만평을 새만금개발청과 MOU를 맺고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직·간접 고용창출 약 1,000여 명 부가가치 창출액 연간 약 3,000억 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동백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외지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하며 노후된 수산물종합센터를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새단장을 추진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

는 2020년 상반기 착공해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뉴딜)사업과 연계해 그동안 낙후된 수산물센터와 해신동이 해산물의 맛과 근대문화의 멋이 함께하는 '수산물 화형 융복합단지'로 개발돼 군산시민은 물론 많은 외지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것이다.

바다와 수산업의 도시인 군산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수산식품의 유통·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산지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의회의장(의장 조규대)가 제220회 임시회를 개최 중인 가운데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 제시로 주목을 끌고 있다.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동과계량기 교체 시 수요자에게 일부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동과 사전예방 등의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바라며, 읍·면·동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위로 동과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충영 의원은 요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혈세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까다롭고 엄격한 신청요건의 틀을 만들도록 고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경숙 의원은 한의약 생리통 예방 건강교실은 생리통이 심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므로 많은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식 의원은 익산시가 청렴도 3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 큰 변화가 없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렴도 2등급 진입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4대 종단 지도자와 지역 화합 논의

정현을 익산시장은 6일 시장실에서 지역 화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대 종단 지도자들과 화합·소통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임 익산기독교연합회장 이성준 목사(성은교회), 전임 익산기독교연합회장 조규선 목사(이리 침례교회), 민용화 일행스님(익산사암연합회장), 배현송 교구장(원불교중앙교구장), 이수현 신부(부송동성당, 전주교구 익산지구장)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현

안인 환경친화도시 추진, 유라시아 철도 거점도시 추진,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등 4대 종단에서 적극 힘을 실어주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4대 종교 대화합으로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4대 종단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4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역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종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미래 먹거리 정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군산시는 시민들의 미래먹거리 정책을 위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6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먹거리센터)설립 구축에 대한 안이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2019년도 푸드플랜 APC 건립 지원 사업에 군산시가 선정돼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0년 8월 중 성산면 창오리 560-20 일원에 조성하게 된다. 시는 현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해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4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먹거리센터는 설립 타당성 용역에 따라 매년 10억원을 인건비·운영비 출연을 통해 재단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